

한국의 천연기념물과 희귀조수류 韓國의 天然記念物과 稀貴鳥獸類

元 炳 旣

文化財委員 · 慶喜大教授

1. 지리적 분포와 종류
2. 한국조류의 계절적인 종의 구성
3. 한국의 천연기념물
4. 絶種 및 稀貴鳥獸類

1. 지리적 분포와 종류

한국의 동물상은 세계 동물 지리적 분포상 구북구(舊北區)에 속하며 한국의 지사(地史)와 현대의 지세(地勢), 기후로 보아 한국 고지소구(高地小區)와 한국 저지소구(低地小區)로 나눈다. 전자(前者)에는 묘향산맥 및 부전령(赴戰嶺) 산맥의 개마고대(蓋馬高帶)와 태백산 일부의 고준지대(高峻地帶)가 여기에 속한다. 지대가 높고 기후도 아쁘르 지방에 흡사하므로 분포된 동물상도 한지성(寒地性)을 띠며 중국 동북지방 북부, 동부 시베리아, 싸할린(樺太), 북해도 등지에 서식하는 것과 동종(同種) 또는 근사종(近似種)이 많으며 대표적인 종류는 대륙사슴, 큰노루, 산양, 대륙목도리담비, 갈, 무산흰족제비, 큰곰(불곰), 범, 시라소니, 우는토끼, 큰두더지와 북평, 멧닭, 긴꼬리올빼미, 싸할린송원자, 세가락딱다구리 등이 있다.

후자(後者)에는 전자를 제외한 한국의 대부분을 점하는 서부, 중비 및 남부가 이 소구(小區)에 속한다. 지대가 낮고 기후도 온화(溫和)하므로 소산(所産) 동물도 난지성(暖地性)을 띠며 중국동북지방 남부, 중국 본토 및 일본에 서식하는 것과 동종 또는 근사종들이며 멧돼지, 고라니, 노랑목도리담비, 족제비, 날다람쥐, 쇠갈밭쥐, 두더지 및 크낙새, 팔색조, 꿩 등을 들 수 있다.

포유류는 육서포유류(陸棲哺乳類)가 81종(및 아종)이며, 그중 박쥐류 23종(및 아종), 집쥐 3종 및 수달 1종을 제외하면 분포상 의의 있는 종류는 45종(및 아종)이다.

조류는 366종이 알려져 있으며 아종까지 합하면 420여 아종이나 된다. 이외에 척추동물에서 파충류 25종(및 아종), 양서류 14종(및 아종), 어류는 약 650종(및 아종) 그중 담수어류(淡水魚類)는 약 150종인데, 잉어, 뱀장어 등을 제외한 순수한 담수산은 110여종이 된다.

제주도에서는 현재까지 17종(및 아종)의 육서 포유류가 알려져 있으나 멧돼지, 대륙사슴 및 삶은 절종되었고 현존 포유류는 노루, 오수리, 족제비, 비단털쥐, 등줄쥐, 갈밭쥐 및 집쥐류 이외에 땃쥐와 박쥐류 2종 등이 있다.

조류는 지금까지 198종(및 아종)이 기록되어 있고, 이외에 양서류 8종(및 아종)과 파충류 8종(및 아종)이 알려져있을 뿐이다.

울릉도에는 잡귀류와 딱새가 있고 이외에 박귀류 2종이 기록되어 있을 뿐, 토착된 포유류는 없다. 양서류도 없지만, 1930년경 인위적으로 반입된 개구리가 있을 뿐이다.

조류는 지금까지 54종(및 아종)이 수록되어 있다.(원, 1971).

2. 한국조류의 계절적인 종의 구성

지금까지 한국에서 기록되어 있는 조류는 총366종이다. 이 중에서 미조(迷鳥)로 취급되는 52종과 이미 절종되었다고 간주되는 원앙이사촌을 제외한다면 316종이 된다. 텃새는 48종밖에 안 되며 철새가 265종으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철새도 겨울새가 111종, 여름새 64종, 춘추 통과하는 통과새<여조(旅鳥)>가 90종이나 된다. 한국에서 번식하는 조류는 텃새 48종과 여름새 64종을 합하면 112종이다. 여름새는 남쪽에서 월동하고 북상 도래(渡來)하여 한국에서 번식하는 종류들이며, 겨울새는 북쪽에서 번식하고 남하하여 한국에서 월동하는 종류들이다. 한편 통과새도 북쪽에서 번식 후 가을에 한국을 통과하며 더욱 남쪽으로 이동하여 월동하고, 이듬해 봄에 다시 한국을 거쳐 북상하여, 북쪽에서 번식하는 종들이며, 남쪽에서 번식하고 북상할 때 한국을 통과하는 종은 붉은발슴새 뿐이다.

이외에 북한에서만 알려져 있는 조류 18종이 있다. 이 중에서 백두산 고준지대에서 번식하는 멧닭, 긴고리울빼미, 쇠오색딱다구리, 세가락딱다구리 및 북방쇠박새 등 5종의 텃새를 제외한 나머지 13종은 모두 미조(迷鳥)뿐이다.

한국조류의 계절에 따른 종류 구성비율

텃	새	48종	13.14%
겨울	새	111종	30.32%
여름	새	64종	17.48%
통과	새	90종	24.59%
미조(迷鳥)		52종	14.20%
아마도 절종된 종		1종	0.27%
계		366종	100.00%

한국조류의 철새와 번식조류의 비율

철새			번식조류의 비율	
여름	새	64종	17.48%	
겨울	새	111종	30.32%	
통과	새	90종	24.59%	
계		265종	72.39%	

번 식 조 류		
여 름 새	64종	17.48%
털 새	48종	13.14%
계	112종	30.62%

3. 한국의 천연기념물

현재까지 지정된 천연기념물 중, 동물에 관한 것을 추려보면 현존 동물에서 절종 위기에 처해 있는 종(種) 자체를 지정한 조류는 15종, 포유류 2종, 곤충 1종 등 14건 18종이다. 조류에서 집단번식지나 도래지 혹은 서식지를 지정한 것이 19건이며 크낙새, 멧황새, 백로 및 왜가리, 팔색조의 서식 또는 도래번식지와 아비의 도래월동지이다. 이외에 가끔인 오골계 1건, 진도개, 쇠고래 등 포유류 2건, 곤충인 장수하늘소 1건, 열목어, 무태장어 등 어류 4건을 합하면 모두 71건이 된다.

제197호 크낙새 *Dryocopus javensis richardsi* Tristram
Tristram's Woodpecker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광릉의 서식지가 알려져 있었으며, 일본 쓰시마에서는 1898~1902년경에 수출용의 값 비싼 표본으로서 다수 남획되어, 그후 비로소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어 왔다. 1920년의 구로다<흑전(黑田)> 박사가 채집한 것이 마지막 개체였다고 우치다<내전(丙田)> 박사가 현지를 답사한 후 논증한 바 있고, 그후 최근의 답사에 이르기까지 쓰시마섬에서는 자취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아마도 절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도 제2차 대전까지는 경기도 광릉을 비롯하여 황해도 평산(平山), 금강산 송림사(松林寺), 개성 송악산, 충북 조령, 수원, 양평, 군포, 천안 전북, 경남 등지에서 채집되었고 경기도 광릉과 개성 송악산에서는 여러 쌍이 번식하여 대를 이어 왔었으며 한국 동란 전에는 경기 금곡에서도 번식 경과가 보고되어 왔었으나, 근래는 자취를 감추고 최근에는 경기도 광릉, 설악산, 속리산의 3개소에서만 그 서식이 알려져 있을 뿐, 영소장소는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1971년 5월 1일 경기도 광릉 임업시험림내 약 80년생 산밤나무에서 채식중인 수컷 1개체를 발견하여 사진 촬영에 성공한 예가 있다.



[사진] 천연기념물 제 11호 광릉 크낙새 서식지의 환경 1971년 월20일

중국 운남(雲南) 지방과 버어마 등 동남아시아의 넓은 범위에 걸쳐 다른 아종(*D. j. torrestii*)이 분포되어 있지만, 본 아종만은 한국에 한하여 생존하는 절종위기의 크낙새의 일종이다. 국제보호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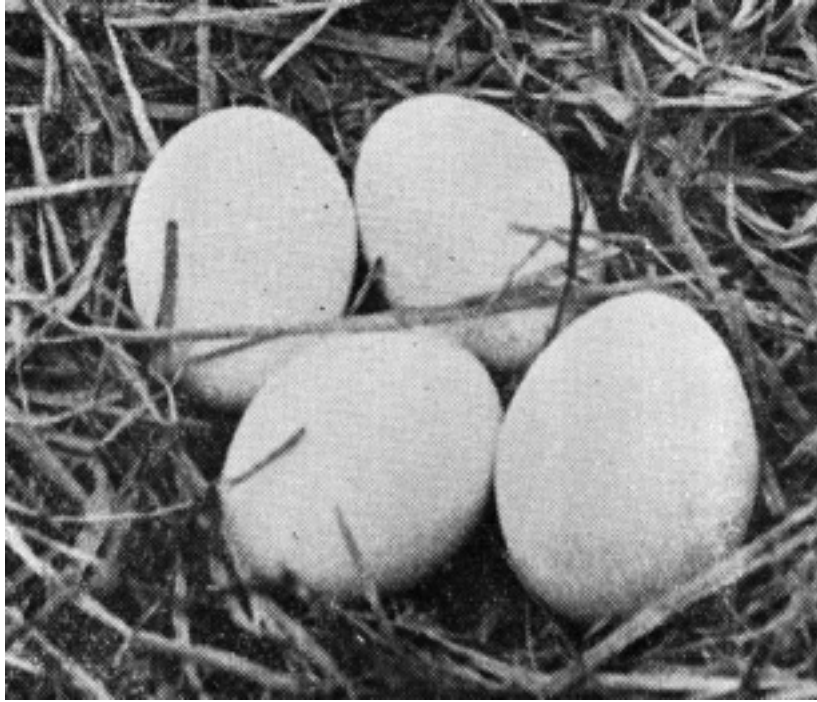
제198호 따오기 *Nipponia nippon*
 (Temminck)
 Japanese Crested Ibis

번식지는 국한되어 있다. 중국 동북 지방, 구 소련 연해주, 일본 니이가다현의 사토 섬, 한국 등지에서 알려져 있다. 지금부터 80년 전 칸카 호반에서는 드물지 않게 번식하였으나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제2차대전후 격감되어 전후의 확실한 번식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일본은 전기의 번식지를 1930~1931년에 발견하였고, 그의 수는 20~30개체에서 최근에는 12개체가 생존할 뿐이다. 중국 절강성(浙江省) 처주부(處州府)에서는 높은 나뭇가지에 영소하여 3~4개의 알을 낳은 예가 있고, 일본에서는 숲속 잡

목의 가지에 영소 산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제2차대전 전에는 11월부터 3월 사이에 겨울새로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무리를 흔히 볼 수 있었으며, 20~50개체 단위의 무리들이 관찰 기록되어 왔으나 최근의 조사에서는 1966년 2월 10일 판문점 부근 초습지에서 단 2개체가 관찰되었을 뿐, 그 밖의 기록은 아직 없다. 이상과 같이 제2차대전 이전에는 흔히 볼 수 있었던 따오기가 현재는 거의 자취를 감추어 일본의 번식지 부근에 한하여 생존하며 간혹 한국에도 자취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한 마리도 관찰된 예가 없다. 국제보호조이다.

제199호 황새 *Ciconia ciconia boyciana*
Swinhoe
White stork

우수리 지방과 중국 동북지방의 동부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서도 그 번식이 알려져 있으며 번식후 일부가 중국 본토의 베이징·푸조우·양쯔강 하류 등지에서 월동한 기록이 있다. 현재 우수리 지방에서 번식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스러우며 중국 동북지방의 북부 고준지의 산림에서 번식한다고 하나 최근의 보고는 없다. 제2차대전 이전까지는 일본의 효고현 시로노사키의 무로하니무라의 쓰루야마의 소나무 영소지가 유망하며 1944년에는 50개체와 6개소의 집이 확인되었으나 전후의 피해로 한때 자취를 감추었다. 얼마전 효고현 내에 8개체가 잔존하다가 현재는 사육되고 있는 3마리만이 생존하고 있으며 인공적으로라도 번식을 꾀하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농약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와 어미가 노령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근친교배의 결과가 최대의 원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한국에는 제2차대전까지 황해도 연안(延安), 해주, 백천 등지와 충북 진천, 음성, 충남 예산 등지에서 번식하였으며 일부는 각지에 분산 월동도 하였다. 충북 진천에는 1959년까지 해마다 한 쌍이 도래 번식하였으나 그후 자취를 감추었다. 그런데 1971년 4월 1일 충북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무수동에서 한 쌍이 지금까지 번식하고 있음을 알았다. 현지 주민에 의하면 그곳에서 최소한 40년 동안은 번식하여 왔으리라고 한다. 보금자리는 소나무의 지상 약 7m높이에 영소하였고 4개의 알이 있었다. 이 번식지도 확인과 동시에 즉각 번식지 자체를 천연기념물(가지정 1호)로 지정하여 전적인 보호를 모색하였으나 그해 4월 4일 사냥꾼에 의해 번식지에서 4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수컷이 포살되고 말았다. 국제보호조이다.



[사진]천연기념물 제 199호 황새의 알 충북음성군 생극면 관성이 무수동 1971년 4월 4일



[사진] 천연기념물 제 199호 황새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무수동 1971년 4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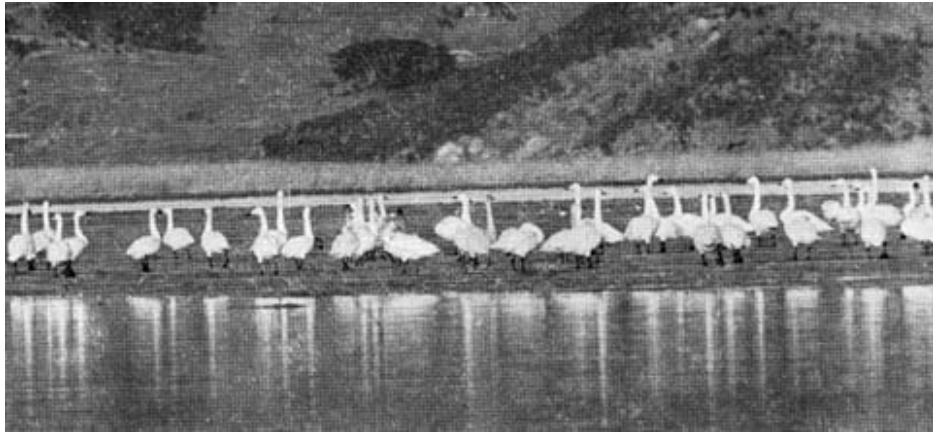
제200호 먹황새 *Ciconia nigra*(Linné)
Black stork

영국을 제외한 유럽과 아세아에 비교적 넓은 분포권을 갖고 있으나 매우 수가 적은 희귀종이다. 연해주 남부에서 아르강 하류에 이르는 우수리 지방에서 드물지 않게 번식하는 듯하며 중국 동북지방북부(북만주와 본토북부 허베이·서부 간쑤)에서도 번식한다. 중국 남부인 양쯔강하류, 장시, 푸젠, 홍콩, 쓰일, 윈난, 타이완 등 지역에서 월동하다. 한국에서는 1938년 이래 경북 안동군 도산면 가송리의 유일한 번식지가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 번식하여 왔다. 이밖에는 한국(경남 김해)에서 월동 중에 간혹 밀렵된 예가 있다. 1965년 6월 가송리 찬마산 절벽 바위에서 부화한 새끼 2마리와 어미의 사진 촬영에 성공한 예도 있다. 집은 지상 30m나 되는 절벽 암상의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나뭇가지로(바닥을 흙과 함께) 쌓고, 속에 이끼를 깔되 매년 같은 집을 보수하여 이용한다. 한국 유일의 이 번식지는 물론 월동 개체에 대한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제201호 백조(고니)	Swans
큰고니	<i>Cygnus cygnus</i> (Linné)
고니	<i>Cygnus bewickii</i>
흑고니	Yarrell
	<i>Cygnus olor</i> (Gmelin)

큰고니, 고니, 흑고니가 있다. 큰고니와 고니는 유라시아 지역 북부에서 널리 분포 번식하며 큰고니는 그 일부가 사할린에서도 번식함이 알려져 있다. 한국에 도래 월동하는 고니는 대부분이 큰고니이며 큰고니의 무리 속에 소수의 고니가 섞여 있다. 제2차대전 때까지 함남 차소, 황해도 웅진군 용호도, 장연등지에 대군이 도래하였고 엄동의 결빙 후에는 남하하여 경남 합천, 창녕, 전남 진도 해안 등지에서 월동하였으나 그들의 수효는 1,000개체 단위의 장관을 보여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 동란이래 도래 수는 격감되어 극히 일부 지역에 한하여 해마다 도래하고 있다. 1961~1962년 낙동강 하류에는 1,000개체 이상이 도래 월동하였으나 1969년 12월 29일에는 250개체 미만의 무리, 1970년 1월 30일에는 약 150개체가 분산적으로 눈에 띄는 정도였으며 1970년 1월 30일 경남 합천에는 27개체(유조 7개체 포함), 1971년 1월 9일의 낙동강 하구에서 642개체의 무리가 월동하고 있었다.

흑고니는 극소수 도래하며 최근의 기록에 의하면 1968년 1월 8일 강원도 강릉 경포대 저수지에서 북상중인 독립무리 24개체를 처음으로 확인하였을 뿐이다.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사진] 천연기념물 제 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의 고니의 무리 1971년 1월 8일

제202호 두루미 *Grus japonensis*
(P. S. L. Müller)
Manchurian Crane

지금까지 알려진 확실한 번식지는 블라디보스톡 북방 약 182km 지점의 칸카 호 부근과 일본 홋카이도 동부 쿠시로외 2개지역 뿐이며 모두 초습지로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초여름에 번식한다. 땅 위에 영소하고, 보통 한 개의 알을 낳지만 간혹 2개의 알을 낳는 수도 있으나 새끼 한 마리를 키우면 성공적이라고 한다. 번식 후 중국동북지방(만주), 중국 본토의 중부와 동부의 해안 및 하구의 전역, 주로 서부에서 활동하며 일부는 한국 남부를 거쳐 일본 큐우슈우 카고시마현으로 건너가기도 한다. 한국에서 11월 초에 자취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남하하며 12월 말과 1월경에는 남부에서 볼 수 있고 다시 2월 중순에는 북상하기 시작하여 3월 말이면 자취를 감춘다. 8.15해방 전에는 압록강 하류의 용천, 황해도 장연, 평산, 웅진, 백천, 연백, 평남 증산 등의 지방에 100내지 1,000개체 단위의 큰 무리가 도래하였으며 결빙 후에는 점차 남하하여 충북의 진천, 음성, 충남 예산, 당진, 서산 등지에 이어 12월 하순에는 전남 완도, 진도, 해남 등의 지방에서 재두루미의 무리와 같이 많은 무리가 도래 월동하였다. 6.25 동란 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도래 수는 격감되고 불과 몇 개체의 작은 무리를 분산적으로 각지에서 드물게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최근 남한에 도래하는 총수는 20-30개체 미만으로 추산되며 1966년 2월 10일 판문점 부근 습초지에서 2개체, 1968년 1월 11일 2개체, 같은 해 3월 29일 판문점 자유의 다리 부근에서 4개체, 1967년 2월 10일 전남 무안군 해변에서 북상 중인 무리 7개체, 1968년 2월 14일 경기도 문산 부근에서 8개체, 같은 해 11월 16일 경기도 강화군에서 2개체, 11월 25일 경기도 판문점에서 6개체 등 최근에 관찰된 기록들이 있다. 1971년 3월 14일에는 판문점 부근에서 3개체를 관찰하여 촬영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지리적으로 국한 분포되어 있을뿐더러 번식력도 약한 본종은 보다 시급한 보호와 증식을 위한 관리가 요청된다. 본종은 현재 국제기구(국제자연보존연맹)의 절종 위기의 동식물목록(Red Data Book)에 등록된 국제 보호조이다.

제203호 재두리미 *Grus vipio* Pallas
White-naped Crane

번식지는 시베리아 동남부와 몽고 동북부 지방이며 중국 남부, 한국, 일본 등지에서 월동한다. 1867~1869년에는 우수리 지방에서 보통 번식하였으나 지금은 수도 적고 번식 상태도 알 수 없다고 한다. 중국 동북지방의 번식지도 2차대전 이전의 기록이 있을 뿐, 최근의 조사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일본에는 현재 가고시마현 이즈미에 한하여 도래 월동하며 1965년 조사에서 수백 개체를 확인하였으나 현재는 수십 마리에 불과하다. 한국에는 2차대전까지는 1,000마리 단위의 무리가 각지에서 월동하였으나 그후 점차 감소되어 100단위의 무리에서부터 한국동란 후에 수십 개체 단위의 무리, 최근에는 불과 20-30개체의 무리도 매우 보기 어렵게 되었다. 10월말~11월초에 대집단이 강원도 횡성에서 원주를 거쳐 11월 중순~12월말 경에는 경기도 여주, 충북 청주에 이르며 이때의 무리는 1,000단위에 이르렀다고 한다. 진천 이외에도 황해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도래하였다. 한국동란 후인 1958년 1월 경남 하동군 악양에서 53개체, 1965년 2월 2일에 낙동강 하류에선 16개체, 1965년 11월의 제주도에선 4개체, 1966년 2월 10일의 판문점 부근에서 17개체, 1968년 경북 월성군 안강 부근의 논에선 50여 개체, 1970년 1월 5일 경기도 이천에선 남하 중인 약50개체의 무리, 1967년 2월 6일 전남 무안군 해변에선 두루미 무리와 같이 6개체 등이 관찰되었다. 이밖에도 1969년 3월 경기도 강화도와 김포 부근에선 해안에 분산된 몇 개체가 관찰되었다. 본 종은 10월 말~11월 초에 도래하여 3월 말까지 한국에서 월동하는 종으로 아직까지는 눈에 잘 띄는 무리이지만 이들의 도래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

제204호 팔색조 *Pitta brachyura nympha*
Temminck & Schlerel
Fairy Pitta

번식지는 중국 안후이 성, 타이완 중부의 산지, 일본 시코루<사국(四國)>, 코오치<고지(高知)>, 쓰시마섬 등지로 매우 국한되어 있으며 중국대륙에서는 베이징·상하이 등지에서 채집되었고, 해아년을 따라 북상 또는남하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2차 대전까지 제주도의 유일한 번식지가 알려져 있었으나 전후 거제도에서도 번식이 확인되었다. 한라산 남쪽 1,200m의 활엽수림에서 몇 쌍이 해마다 도래 번식하며, 거제도 동부면 학동 해변의 잠목림 돌수형 부근에서 여러 쌍이 해마다 도래 번식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경기도 광릉 죽엽산 및 기타 전국 각지에서 채집되어 극소수나마 전국적으로 분산 도래 또는 통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최근에는 1971년 7월 9일 거제도 동부면 학동에서 부화 후 9일된 6마리의 새끼를 확인하였다. 5월이면 한국에 도래하여 대부분 6월중 번식을 마치나 7월 중순까지 번식한 예도 있다. 인도차이나, 실론, 보르네오 등지에서 월동한다. 일찍이 진화학자인 윌레스가 이 새를 미의 극치라고 표현했듯이 매우 아름다운 희귀한 새이므로 이들의 번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



[사진]천연기념물 제 233호 거제도 학동의 팔색조 도래지의 둥우리 1971年 7月 11日

제205호 저어새

Black-faced Spoonbill
and Spoonbill
Platalea minor Temminck &
Schlerel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Platalea leucorodia mijor
Temminck & Schelrel

노랑부리저어새와 저어새가 있다.

노랑부리저어새는 유라시아 지역에 비교적 넓은 분포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오직 몇 개체의 채집 기록만이 있을 뿐, 극소수가 겨울에 도래하는 희귀종이다. 지금까지 월동 중인 개체가 간혹 밀획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소수가 도래 월동하리라고 예상된다. 또 본종은 우수리 지방에서는 흔히 왜가리나 백로의 무리와 같이 번식하였으나 현재는 극소수가 생존한다고 한다. 일본에도 불규칙적으로 극소수가 도래 월동한다.

저어새는 한국 동란 때까지 서해의 위도에서 번식하였으나 전후의 번식지는 아직 확인되지 못하였다. 아마도 서해의 무인도에서는 번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평남 안주군 독립리, 평북 관산의 원하리 등지의 해안 가까운 지대에 나타났으며 덕섬에서의 기록도 있다. 이밖에 낙동강 하류에서는 1968년 12월 30일 5개체를 관찰한 예가 있다. 일본에도 간혹 건너가 월동한다. 세계적으로 진귀한 종으로 여겨왔고 또한 보호하고 있다.

제206호 너화(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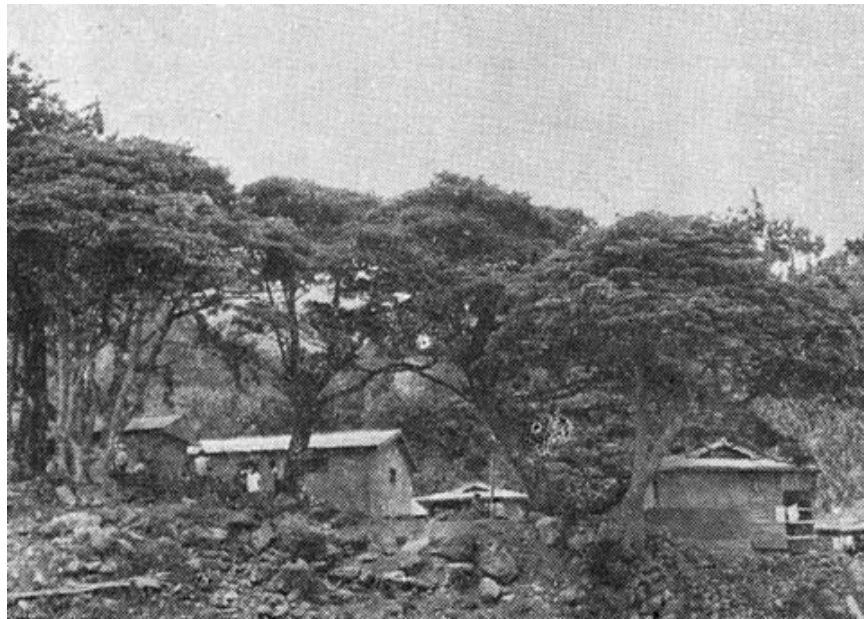
Otis tarda dybowskii
Taczanowski

Great Bustard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멸종하였으며, 한때는 흔했던 다른 지역에서도 아주 희귀한 종으로 되었다. 우수리 지방, 동북내몽고 등지에서 번식하며, 트랜스바이칼리아, 중국 동북 지방, 중국 본토 및 드물게는 일본에도 도래 월동한다. 한국에는 제2차대전 때까지 전국 각지로 다수 도래 월동하였으며, 40-50개체의 무리를 보통 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격감되어 극소수만이 전국 각지에 분산도래 월동하고 있다. 너화과의 조류는 세계적으로 절종 위기에 놓인 새로서 그의 보호와 관리에 각별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으며 본종은 그의 번식지도 좁은 범위일뿐더러, 진귀하고 맛이 좋은 엽조로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는 종이며 이전에는 서울 이북의 논에서 흔한 겨울새였다. 19세기 말에는 수백 개체의 무리들이 서울 주변에 도래하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작은 무리가 매우 드물게 도래할 뿐이다. 1970년 11월 29일 경기도 강화에서 7개체를 관찰한 예가 있을 뿐이다. 본종에 대해서는 그의 특별한 보호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일명 들칠면조라고도 한다.

제215호 흑비둘기 *Columba janthina*
janthina Temminck
 Japanese Wood Pigeon

일본 혼슈우 중부 이서(以西)의 주로 태평양에 연한 도서지방과 중국 산둥(山東), 위해위(威海衛) 여름철새)과 한국에서 알려져 있을 뿐이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울릉도 전남 완도군 보길도, 그밖에 추자군도(楸子群島), (사수도(泗水島)), 횡간도(橫干島), 소흑산도 등지의 서식지가 알려져 있다. 이외에 경남 거문도, 전남 흑산도, 홍도 등 도서에서도 서식할 것이나 확실한 자료는 없다. 울릉도에서는 1956년 8월의 조사에서 40개체 미만이 서식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1971년 8월 9일~12일 답사에서는 최소한 200개체 이상의 집단이 서식하고 있다고 추산되었다. 보통 비둘기와는 달리 1산 1란이다. 진귀하고 사라져가는 본종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



[사진]천연기념물 제237호 울릉도 사등의 흑비둘기의 도래지 1961年 8月 10日

제228호 흑두루미 *Grus monacha* Temminck
Hooded Crane

번식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도 아프르강 하루에서 영소하리라고 하며(위로비에브, 1954) 이들의 주변식지는 더욱 서쪽의 몽고 바이칼호 부근일 것이라고 한다.

겨울에는 몽고의 사막을 지나 중국 동북지방의 넓은 들을 지나 한국으로 남하하여 야마구찌현<태모군팔대촌(熊毛郡八代村)>과 카고시마현<아구근(阿久根)>에까지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외에 중국 장강하류에서 월동하며 중국 동북지방은 이동경로가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에서 11월 도래하여 4월에 간다. 일본에서는 11월 중순에 와서 2월 말 또는 3월초까지 있다. 남부 우스리지방 강변에서는 3-11마리의 무리를 4월말부터 5월 중순까지 볼 수 있다고 한다.

2차 대전까지 한국에서는 그리 광활하지 않은 논 필에서 30-50마리의 무리를 지어 월동하였으나 해안지대에서는 보기 드물었다. 때로는 재두루미의 무리와도 섞이어 5-25마리 또는 50마리의 무리를 짓기도 하였다. (오스틴, 1948). 재두루미의 무리보다 수는 적으며 특히 근래에는 거의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격감되어 지금의 확실한 도래지는 알 수 없다. 일본에서는 한국과는 반대로 재두루미보다 흑두루미의 도래수가 많으며 카고시마 이즈미 조류보호구에 도래하는 흑두루미는 1962년 811마리에서 1965년 1,442마리로 증가되고 있다(야마시다, 1967). 세계적으로 절종위기에 놓여 있는 두루미의 일종으로서 시급한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

백로, 왜가리 도래지와 번식지

백로는 한국의 백의 민족과 평화를 상징하는 조류로서 집단번식지에서는 오래전부터 부락민에 의하여 잘 보호되어 왔다. 4월 초 한국에 도래하여 마을을 찾아 집단적으로 번식을 마치고 9월말부터 10월에는 남으로 날아간다.

왜가리는 백로보다 빨리 3월 중순에 자취를 나타낸다. 현재 백로와 왜가리의 집단번식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보호하고 있다.

- 제13호 진천 백로 및 왜가리 도래지
- 제208호 삼천포 백로 및 왜가리 도래지
- 제209호 여주 신접리의 백로 및 왜가리 도래지
- 제211호 무안 용월리의 백로 및 왜가리 도래지
- 제210호 해남 방추리의 백로 및 왜가리 도래지
- 제229호 양양 포매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 제230호 청원 노호리의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 제231호 통영 도선리의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백로 *Egretta alba* (Linné)는 남부 우수리 지방에서 중국 동북지방, 일본(혼슈우 중부 이남) 중국 본토, 인도차이나, 말레이반도, 인도, 실론, 필리핀, 순다열도, 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지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 번식하며 북부지역의 번식집단은 오

키나와, 타이완, 중국 동남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월동한다. 특히 한국에서 번식한 백로는 대부분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 월동한다.

왜가리 *Ardea cinerea jouyi* Clark는 일본, 중국, 몽고, 인도차이나, 버마, 말레이시아, 한국 등지에서 번식하며, 일본 남부에서 오키나와, 타이완, 동부 중국, 인도차이나 등의 지역과 한국남부(극소수)에서 월동한다. 한국에서는 중대백로, 중백로, 황로 등의 종이 전국 각지에서 집단번식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중대백로가 차지하고 있다. 중백로는 한국 중부의 충북 진천군 이월면과 청원군 부용면 노호리 및 영월군 쌍용리에 한하여 집단번식하고 있다. 쇠백로와 황로는 전남 해남 화산면 방추리와 충북 청원군 부용면 노호리에서 소수가 번식하고 있다. 쇠백로 [*Egretta garzetta* (Linné)]는 이밖에 평북 선천군 묵의도에서 다수 번식하며 황로 [*Bubulcus ibis coromanda* (Boddaert)]는 청원군의 번식지는 한국에서는 지금의 북한지가 된다. 황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입(移入) 분포되고 있는 종으로 한국에도 최근 새로이 이입 번식하고 있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중대백로 *Egretta alba mondesta* (J. E. Gray)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백로는 본종이다. 날개 길이 370mm내외, 깃은 순 백색, 번식기의 깃은 등에 수십본(48-54)의 장식우와 가슴에도 장식우가 있다. 부리는 번식기에는 기부가 녹색, 기타는 흑색이다. 겨울에는 등황색으로 변한다. 눈 주위의 피부는 황록색, 발은 윗부분과 바닥이 황색이고 나머지는 흑색이다.

쇠백로 [*Egretta garzetta* (Linné)] 소수가 한국에 도래하는 작은 백로이다. 날개 길이 270mm내외, 전신은 백색, 번식기의 깃은 머리에서 2-3본의 긴 장식우와 등에는 꼬리 끝까지 긴 장식우가 있다. 가슴에도 몇 개의 장식우가 있다. 눈 주위의 피부는 황백색, 부리와 다리는 흑색, 발가락은 녹색이다.

중백로 [*E. intermedia intermedia* (Wagler)] 이름은 그대로 중간 크기로 날개 길이가 300mm 내외, 부리는 오히려 쇠백로 보다 짧다. 전신이 순백색, 머리 위의 깃은 길며 관상(冠狀)으로 되어있다. 등의 장식우는 매우 길며 꼬리보다 훨씬 돌출하였다. 황로 [*Bubulcus ibis coromanda* (Boddaert)] 쇠백로 보다 약간 작으며 날개 길이 250mm내외, 겨울깃은 백색이므로 얼핏 쇠백로와 혼동하기 쉬우나 부리가 황색이므로 구별된다. 그러나 여름깃은 몸 각부에 등황색 또는 등적색의 장식우가 있으므로 전혀 외모의 색깔을 달리한다. 이밖에 노랑부리백로는 북한(평북 엽도)에서 번식하고 중부 이남은 봄 가을에 극소수가 통과하며, 대백로는 매우 드물게 도래월동할 뿐이다.



[사진] 중대백로와 그의 새끼

아비	Diver, Loon
아비	<i>Gavia stellata</i> (Pontoppidan)
큰희색머리아비	<i>Gavia arctica viridigularis</i> Deight
희색머리아비	<i>Gavia arctica pacificus</i> (Lawrence)
흰부리아비	<i>Gavia adamsii</i> (G. R. gray)

아비는 구아(歐亞) 대륙의 북극주변, 북부 북미, 사할린(화태), 천도(千島) 등지에서 번식하며 한국해안을 거쳐 소수가 남하하여 남해부근에 분산되어, 11~4월 월동한다.

희색머리아비 및 큰희색머리아비는 시베리아 동북부 및 알래스카 등지에서 번식하며 한국남해에 도래 월동한다.

흰부리아비는 강원도 순달면에서 1914년 4월 7일에 단 일 개체의 암컷을 채집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동해와 서해에서도 목견되나 대부분이 남해에서 월동하며 거제도, 다도해 연안에서는 20-40마리의 무리를 해상에서 볼 수 있다.

회색머리아비와 큰회색머리아비의 혼성군이 대부분이며 간혹 아비가 섞이기도 한다.

아비, 회색머리아비, 큰회색머리아비, 흰부리아비의 순으로 길이와 무게가 크며 부리는 곧고 번식깃털에 있어서 몸에 아비는 밤색, 회색머리아비는 자색(紫色)의 아름다운 삼각형 무늬가 있다. 매우 잠수가 능하나 둔하기 때문에 쉽사리 희생된다. 현존조류 중 하등에 위치하여 나날이 감소되고 있는 종류일 뿐더러 한국에서는 거제도와 남해근해에 한하여 군집 월동군을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보호와 관리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 거제군 연안 일원의 아비의 도래지를 천연기념물 제227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낙동강 하류인 원동, 물금, 구포, 김해, 창녕, 다대포 부근의 바다와 민물이 교차되는 삼각주 일대는 월동을 위한 수금류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고 있다. 수서 동식물이 풍부하며 갈대밭도 끼인 아직 개간되지 않은 광범위한 초습지는 수금류와 맹금류 특히 수리류 등의 철새에게 알맞는 서식 환경이다. 고니류를 비롯하여 가마우지류, 갈매기류, 오리, 기러기류 등 대집단이 군집할 뿐만 아니라 독수리, 참수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등 수리류의 적지 않은 수가 월동하며 많은 종류의 도요 물떼새가 이 지역을 봄가을에 통과한다. 업동에 접어들어 중부 이북의 초습지와 수원(水源)이 결빙된 후에도 낙동강 하류 삼각주 일대는 얼지 않으므로 11월부터 3월말까지 많은 겨울 철새가 군집되며 5~6월과 9월~10월에도 도요 물떼새의 대집단이 이 지역에서 먹이를 찾아 먹고 휴식을 하면서 통과하고 있다. 간혹 두루미, 떡황새, 재두루미, 황새,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도 도래 월동하며 제비물떼새, 넓적부리도요 등 희귀종도 봄가을에는 통과한다. 이 지역은 한국의 거의 모든 새를 망라한 수금류와 수리류를 볼 수 있다. 집단이 크고 밀도가 높아 유일한 새의 안식처이므로 보다 철저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오골계

제135호 경남 동래군 기장면 대나리의 오골계

깃이 부드럽고 명주실 모양의 광택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실키] 라고 불리우는 닭 품종의 하나이다. 인도차이나 지방에서 동쪽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종류이며 한국에는 오래 전에 중국에서 수입되었다고 한다. 그후 사육 개량되어 독자적인 품종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오계(烏鷄)라고도 부르며 대부분이 백색이나 흑색인 것도 있다. 날개깃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우며 작은 깃가지가 없어 세열(細裂)되어 있어 견우계(絹羽鷄)라고도 부른다. 계관(鷄冠)이 수컷은 장미관(冠)이 있는 것도 있다. 발가락은 보통 닭과는 달리 뒤로 향한 하나의 발가락<후지(後趾)>외에 이 뒷발가락 상위에 하나 또는 2개의 발가락을 갖고 있어 5-6개의 발가락을 갖고 있다. 경부(脛部)에는 깃이 적고 산재하며 눈의 홍채는 창흑색(蒼黑色)인 것이 많다. 일반 닭에 비해 혈색이 검다. 따라서 골육(骨肉)이 흑색이므로 식용으로는 일반이 좋아하지 않으나 호흡기병에 좋다고 하며 오래 전부터 약용으로 제공되었다. 경남 동래군 기장면 동부리에서 애완용 또는 약용으로 사육하는 집이 많다.

제216호 사향노루 *Moschus moschiferus*
parvipes Hollister
Musk Deer

사향노루는 세계적으로 1종 7아종(亞種)이 있으며 중앙 및 아시아 시베리아, 몽고, 중국 등 북부지방, 사할린 및 한국에 분포되어 있다. 본 아종은 동부 시베리아, 아르르, 우수리지방, 중국 동북지방(만주) 및 한국에 분포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전남 목포 부근의 산과 경기도 이천 등지에서 채집되었으며, 최근 지리산에서 서식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나 조사된 자료는 없다. 최근 각지에서 간혹 포획된 박제품이나 모피를 시중에서 볼 수 있으나 수호가 적은 희귀종이다. 1971年 6月 충북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앞 야산에서 정평남(鄭平男)씨에 의하여 생후 얼마 안된 수컷 한 마리를 생포하여 12月 17日까지 농가에서 사육하다가 창경원에 기증한 예가 있다. 모피와 고기의 질은 열등하나 수컷의 북부의 사향냥이 값이 비싸게 팔리므로 남획되고 있어 절종될 우려가 있는 희귀종이다. 보호와 관리가 앞서야 하겠다.

제217호 산양 *Naemorhedus goral*
raddeanus (Heude)
Amur (Manchurian) Goral

산양은 세계적으로 국한된 지역에서 불과 5종밖에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 중 본종은 아무르 우스리 지방에서 중국 동북지방과 한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2차대전 때까지 강원도 평강군 유진면, 함북 무산 등지에서 채집된 기록이 있다. 전후의 실태를 보면 강원도 설악산, 대관령 오대산 등 고산지대에 적지 않은 수가 서식하고 있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해마다 폭설 후 몇 백 마리씩 남획된 결과 격감되어 극소수가 잔존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산양은 전형적인 암산(岩山)에서 서식하는 동물이며 짧은 무력하나 다른 짐승이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좁은 바위 위를 쉽사리 건너가며, 험한 절벽을 잘 통과한다. 보통 1,000m 이상의 칩엽수림을 좋아하며 단독으로 생활하는 수가 많다.

먹이는 식물성 먹이를 먹으며 반추(反芻)한다. 추위에 강하며 영하10~20℃에서도 여전하나 강설량이 많을 때에는 평지로 내려온다. 교미기는 10월 중순~11월 중순, 출산은 4~6월에 한 마리(간혹 2마리)이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5종은 어느 것이나 겨우 각지의 산악지대에 살아 남아 있는 진귀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화학적으로는 소과의 선조에 가까운 극히 오랜 종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극소수 생존하고 있을 뿐이며 한국에서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시급한 보호와 관리가 요청된다. 국제 보호수(保護樹)의 1종이다.

쇠고래 *Eschrichtius gibbosus* (Erxleben)
Californian Grey Whale
제126호 울산쇠고래 회유(廻遊) 해면

북태평양, 일본해, 오츠크해, 캄차카 등 해역과 한국동해에 분포되어 있으며 여름에는

베링해, 동북 시베리아에서 캘리포니아, 멕시코, 캐나다 등 해역에서 볼 수 있다. 즉 여름은 북쪽에서 지내고 겨울에 남하한다. 한국에서는 동해안 신포, 평강군 유진(揄津), 장전, 울산 등지와 다도해에서 포획된 기록이 있다.

몸의 길이는 고래의 중간정도의 크기인 15.4~18.6m, 몸 전체가 석판(石板) 흑색이며 이후에는 2-4개의 주름이 있을 뿐이다. 임신기간은 1년이며 2년마다 새끼 한 마리를 분만한다(구로다 흑전(黑田), 1953). 포항, 울산 부근에는 남하한 개체가 12월~1월경 출현한다. 남획된 결과 격감되었으므로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울산부근을 천연기념지로 지정보호하였다(모리 삼(森) 1956).

진 도 개

제53호 전남진도군 진도면 진도 본도

전남 진도군 진도면 민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이며 귀가 서고 꼬리가 감긴 동남아계의 중형 종에 속한다. 감각이 극히 예민하고 용맹스러워서 숲속의 꿩도 추적하며 매 사냥이나 총사냥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집도 잘 지키고 쥐도 잘 잡는다. 어깨 높이는 수컷이 50cm, 암컷이 47cm 정도이다.

적황색의 짧고 거친 털을 갖고 있다. 성능이 좋으므로 제2차대전 때까지 일본 오사카로 수출되었다. 진도는 교통이 불편하므로 다른 품종이 이입 교잡되지 않아 순수한 동남아계의 좋은 품질을 그대로 보존하여 이와 같은 우량종이 되었으며 이것을 순수 보존하기 위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전후 임의로 반출되고 관리도 소홀하였으나 근래에 와서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제공하여 보존에 노력하고 있다.

제27호 제주도 무태장어 서식지

무태장어(*Anguilla marmorata* Quoy & Galmard)는 드물게 일본 치바<천엽(千葉)>, 나가노<장야(長野)>현 이남에서 드물게 볼 수 있으나 태평양 및 인도양에는 많다. 한국에서는 제주도 서귀포 천지연 폭포로부터 하구(河口)에 이르는 유역에 한하여 볼 수 있다. 일본 근해에 있는 개체는 뉴우기니 북부에서 산란하고 엽형유(葉形幼)이 난류를 타고 북방으로 표류(漂流)해 온다고 짐작하고 있다. 보통 뱀장어와 같지만 성장한 것은 매이 비대한데 비해 머리는 작고 체장은 짧다. 등은 다소 갈색을 띤 흑색이며 담황색의 무늬가 있다. 큰 것은 길이 2m, 굵기 40cm나 된다고 한다. 제주도 서귀포산 표본은 길이 138cm, 굵기 32cm, 머리길이 15cm, 체중 7kg의 1예가 있다. 낮에는 폭포소(瀑布沼)에 들어가 있다가 밤에만 나와 계를 즐겨 먹고 산다.

열목어의 서식지

제73호 강원도 정암사(淨岩寺)의 열목어 서식지

제74호 경북 봉화 소천면의 열목어 서식지

열목어 [*Brachymystax lenox* (Pallas)] 는 시베리아, 유럽, 북미, 중국동북지방 및 한국 등지에 분포되어 있는 한대어(寒帶魚)이다. 한국에서는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한강, 섬진강, 낙동강 및 두만강 상류에 서식한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설악산에서는 백담

사 계곡, 장수대 계곡 및 단목령(檀木嶺)과 같은 영서(嶺西) 구역에서 볼 수 있으나 영동 구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다고 한다. 강원도 오대산에서는 월정교(月精橋) 상류에서 볼 수 있다. 상류의 한냉한 물 속에 살며 낙동강 상류는 세계적인 남한계(南限界)를 나타낸다. 몸은 진한 홍갈색의 바탕에 흑갈색의 점 무늬가 산재해 있다. 살았을 때의 눈에는 붉은 줄이 있어서 열목어라고 부른다. 큰 것은 1m나 되며 고기맛이 좋으므로 앞으로 양어를 연 한다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종이기도 하다.

제218호 장수하늘소 *Callipogon relictus*
Semenov
Long-horned Beetle

중국 동북지방 북부, 동부 시베리아(우스리연해 지방) 및 한국에 국한 분포되어 있다. 몸은 광택있는 흑갈색이고 암수가 비슷하나 수컷은 암컷에 비해 큰턱<대악(大顎)>이 발달하였다. 하늘소의 왕자로서 제일 크며 성충의 꼬리에서 앞턱까지의 크기는 수컷은 12cm까지의 것도 있으나 작은놈은 암컷과 같이 7~8cm의 정도이다. 유충은 서나무(*Carpinus laxiflora*) 100년생 이상의 직경40cm, 지상고 70~200cm 범위에 일반 하늘소와 같이 수관 속에 서식하며 한 나무에 2-3마리 또는 3-4마리를 볼 수 있다. 다소 썩은 나무에 산란하는데 기생하여 썩은 것인지 썩은 나무를 선택 산란한 것인지 아직 조사를 요하나 생나무에는 천공(穿孔) 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충은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의 수간에 흑 같이 나온 부분에서 나오는 수액(樹液)을 빨아먹으며, 암컷 한 마리가 있으면 3-4마리의 수컷이 모여 큰 턱으로 상대방을 잘라 죽이는 격투가 벌어져 수컷의 사체 조각이 지상에 낙엽처럼 떨어져 있다. 제2차대전 때까지 한국에서는 서울 북한산에서 2개체, 강원도 춘성군 북상면 추전리에서 4개체가 알려져 있었으나 전후에는 경기도 광릉 소리봉에서 적지 않은 개체가 채집되었으며 최근에는 강원도 명주군 소금강에서 한 마리가 채집된 예가 있다 본 속(*Callipogon*)은 아세아에서 유일한 종이며 이밖에 중앙 아메리카와 남미의 북부 및 안치르크스 섬에 국한 분포된 근연종(近緣種)이 있다. 아시아와 미주의 두 대륙 사이의 고대의 육속적(陸續的) 관계를 말해 주는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몸이 거대하여 절종 위기에 놓은 진귀한 하늘소이다.

4. 절종(絶種) 및 희귀한 조수류(鳥獸類)

원앙이사촌 *Tadorna cristata* Kuroda
Kuroda's Sheldrake

1916년 12월 (?3일) 부산부근 낙동강 하류에서 암컷 한 마리가 잡힌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발견 또는 채집된 예가 없으며 절종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오직 두 마리의 표본이 알려져 있다. 1877년 4월 「올라지위스토크」 부근에서 자은 암컷을 슈레이타박사(1890)에 의하여 황오리와 청머리오리의 자연잡종으로 발표된 것과 1913~1914년 11월말-12월 초순경 군산부근 금강하구에서 잡힌 수컷 한 마리가 있다. 「올라지위스토크」 산 암컷은 현재 덴마크 코펜하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나

머지 한국산 두 점은 일본 동경 구로다 <흑전장례(黑田長禮)> 박사의 소장품이다.

지금부터 약 130년 전의 일본 화가의 그림 속에서 본 종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고서(古書) 관문금보(觀文禽譜)에도 「한국원앙새」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 약 200년 전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입한 것이 확실해졌다(구로다 흑전(黑田), 1958).

확실한 분포권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오래전에는 한때 동부 시베리아에서 번식하고 한국과 일본에 도래 월동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지금 한국에는 표본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필자는 1965년 12월 처음으로 구로다 박사 소장품인 한국산 표본 한 쌍을 보았다. 필자는 1960년 6월 동경에서 개최되었던 제12차 국제 조류보호회의에서 배부받은 사진을 갖고 있을 뿐이다. 청둥오리보다 약간 큰 흑부리오리와 비슷한 크기의 오리의 일종이다.

국제자연보존연맹에 등록되어 있으며 아마도 절종된 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빨쇠오리 *Synthliboramphus wumizusume*
(Temminck)
Japanese Murrelet

일본 이즈반도연안 <이두칠도신자원도(伊豆七島神子元島)>, 및 큐우슈 후꾸오까현 연안도서에서 번식하며 겨울에 일부는 북해도근해 이와테현, 가나가와현 연안과 세도나йка이, 큐우슈 북부연안 등지에서 월동하며 일본해 연안에서는 경도(京都)(부관도(府冠島))와 이사가와현<축창도(軸倉島)> 등지의 기록이 있다.

한국에서는 1884년 4월 20일 경남 남해 앞바다에서 수컷 2개체가 채집되었을 뿐이다. 대부분이 주년 번식지 부근을 떠나지 않으므로 매우 드물게 한국해협에 나타나는 듯하며 한국남해 도서에서의 번식여부는 아직 조사를 요한다. 일본의 번식지에도 근년에 격감되어 절종위기에 놓여 있으며 국제적으로 시급히 보호가 요청되는 바다쇠오리의 일종이다. 바다쇠오리와는 차이가 특히 여름깃에 있어서 머리 위에 검은 댕기<우관(羽冠)>가 있는 점이나 겨울깃은 댕기가 없다.

습새 *Procellaria leucomelas* Temminck
Streaked Shearwater

일본 북해도에서 큐우슈<구주(九州)>에 이르는 해안 및 한국과 이즈시치도<이두칠도(伊豆七島)>에서 오가사와라군도<소립원군도(小笠原群島)>에 이르는 해안도서에서 국한 번식하며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 몰락카스, 뉴기니아 등지에서 월동한다. 3월 초순에 도래하여 소도서(小島嶼)의 숲속 지하의 바위틈이나 땅속에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갖고 수평으로 굽어진 구멍을 파서 간단한 소재(巢材)를 깔고 일산일란(一産一卵)하는 대양(大洋)성 조류이다. 6월 중순~7월 초순에 부화하여 어미의 먹이를 받아 점차 성장하여 11월 중순경 어미는 섬을 떠나 해상생활로 옮겨지고 새끼는 다소 늦게 11월 하순 섬을 떠나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 어미가 섬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산란, 포란 기간 이외에는 낮에는 해상에 있으며 야간에만 육지에 날아 들어온다.

울릉도에는 나리동분지(羅里洞盆地), 미력산의 일부와 동쪽에 있는 관음도(觀音島), 대섬<죽도(竹島)>에 한하여 다만 적은 수가 생존하고 있을 뿐이다. 관음도에는 북쪽 급

경사면, 대선에는 남쪽 대나무밭과 동북쪽 암석틈에 다소 영소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도 해마다 어부와 주민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어 인적을 피하여 급경사로 옮겨지고 있다(원, 1958).

약 80년전 울릉도 개척당시에는 대집단이 번식하였으나 주민들이 포식한 결과 지금의 실태는 극소수가 생존할 뿐이다.

이외의 기왕의 기록을 보면 평북 랫도(臘島), 황해도 서도(西島), 전남 칠발도(七發島) 등 번식지가 알려져 있으나 최근의 남한에서 조사된 확실한 번식지는 울릉도와 제주 북제주군 추자군도 사수도(泗水島)(원, 1970) 뿐이다.

습지는 일본과 한국근대 해안 등 도서에 국한 번식할뿐더러 한국에서도 불과 수개소에 불과하므로 나날이 협소해지고 있는 번식지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보호가 있어야 하겠다.

원앙이 *Aix galericulata* (Linné)

Mandarian Duck

시베리아 동남부의 아르르, 우스리지방, 중국 동북부지방, 중국, 일본 및 한국의 중부 이북에서 번식하며, 남부 중국과 일본, 아미오시마, 대만, 한국의 중부 이남 등지에서 월동한다.

한국에서는 중부 이북의 평남 덕천, 양덕, 경기 포천 등 산간지대에서 그의 번식 예가 알려져 있으며 수동(樹洞)이나 개천의 기슭에 산란한다. 중부 이남에서는 9월부터 3월 사이에 2~3마리에서 10마리 내외의 무리를 숲속 계류의 물이 고인 곳, 연못, 물웅덩이 등지에서 눈에 띈다.

경기도 광릉의 숲 계곡의 물 고인 곳에서 10개체의 무리를 발견하여 잡은 2개체의 위(胃)에는 도토리 뿐이었다.

좁은 범위의 분포권을 갖고 있을뿐더러 한국산 오리 중에서는 수동에 산란하는 유일한 종이며 수가 적은 아름답고 진귀한 오리로 알려져 있다.

범(호랑이) *Felis tigris coreensis* Brass

Korean Tiger

한국, 중국동북지방, 중국북부, 동부몽고 등지에서 알려져 있다(1951, Ellerma and Morrison Scott). 한국 이외의 지역 특히 중국동북지방(만주)산 범을 지금까지 독립된 아종(*F. t. amurensis* Dode)으로 취급하는 학자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동일 아종으로 취급해 둔다.

범은 백두산에서부터 전남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 2차대전까지 함북 무산에서 5마리(1935), 함남 고산(高山)에서 2마리(어미1, 새끼1, 1924~1929), 전남 영광군 불갑산(佛甲山)에서 1마리(1911), 강원도 가리산(加里山)에서 1마리(수컷, 1918), 경북 경주군에서 1마리(수컷, 1922), 평북 운산군(雲山郡) 북진(北鎭)에서 1마리(1930) 등 포획기록(가미다 상전(上田), 1936)이 있으나 전후 한국중부 이남에서 포획된 확실한 자료는 아직 없다. 남한에서는 아마도 절종된 것으로 보이며 백두산 고준지대에 한하여 극소수 잔

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원 1961).

몸무게는 142kg-176.5kg, 몸 길이 151.5cm, 173cm, 180cm(수컷), 귀높이 102cm, 꼬리길이 97cm 등의 예가 있다. 산림속과 산림바위 굴에서 살며 야산에는 없다. 범의 뼈는 호골주를 만들어 습증치료에 썼으며 동의보감에는 뼈, 고기, 기름, 수염, 코, 이빨, 가죽, 열, 눈알 등을 약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흰긴수염고래 *Balaenoptera musculus* (Linné)
Great Blue Whale

현존동물 중 제일 크다. 체장이 33m까지의 것도 있으며 암컷이 수컷보다 1~2m 정도 크다. 체중은 150~160톤이나 된다. 영명 그대로 몸의 색깔은 농창회색(濃蒼灰色), 가슴지느러미의 내측(內側)만이 백색이고, 입부분과 수염만이 흑색이다. 수염의 수는 250~400매, 인후의 주름은 70-118조이다.

양반구(兩半球)의 온화한 한대의 냉수구역(5℃~20℃)에서 플랑크톤의 출현지역과 계절에 따라 규칙적으로 회유(洄游)한다. 대개 수개체에서 50개체 정도의 무리를 볼 수 있으며 잠수 15~25분마다 바다 위에 떠올라 호흡한다. 교미는 초겨울, 임신기간은 1년 내외, 늦가을 6m내외의 새끼를 분만한다(구로다 흑전(黑田), 1953).

한국연안에는 매우 희소하여 단 한번의 기록(흑전(黑田), 1938)이 있을 뿐 현실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종이며 최양질(最良質)은 아니지만 지방량이 그중 많으므로 업자의 제일의 목표물이기도 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100여개체 미만이 생존하고 있다고 보며 국제보호수로서 국제적인 엄격한 통제하에 시급한 보호책이 요청되고 있는 절종 위기의 고래이다.

흰수염고래 *Balaenoptera physalus* (Linné)
Common Rorqual, Finback

태평양, 대서양의 양반구 특히 북해양에 많다. 한국에서는 서해의 대흑산도, 대청도와 동해안의 울산, 장진, 신포, 유진(揄津) 등지에서 포획된 기록이 있다.

흔히 50마리 이상의 무리를 지으며 가끔 수상(水上)에 몸을 나타내며 약 15분마다 호흡도 한다. 체장은 15~25m, 수컷은 암컷보다 크다. 배면과 경부(脛部)는 암회색, 복면은 백색이다. 배면과 복면의 경계는 불확실하다. 등지느러미는 5~7cm 정도이나 가슴지느러미는 소형이다. 몸은 가늘고 길며 인후부의 주름살은 68~114조, 수염수는 262~473매이다. 1~2마리를 분만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 3,500개체 정도가 생존하리라고 추산되고 있는 국제보호수의 일종이다. 국제적인 엄격한 통제하에 포획 금지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시급한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 흰긴수염고래에 이어 현존동물 중 두 번째로 큰 짐승이며 경유(鯨油) 생산량 또한 제2위의 고래이다. 한국 포경업의 주대상물로서 남획되고 있을 뿐더러 이대로 포경업을 계속한다면 절종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포획에 앞서 관리와 보호가 있어야 하겠다.

늑대 *Canis lupus chanco* Gray Wolf

본 아종은 소련령 파미르, 중국, 파키스탄, 티안산, 티베트, 몽고, 북부 중국 등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전역에서 볼 수 있다. 승냥이(*Cuon alpinus alpinus* Pallas)가 한국에 서식한다는 중전의 기록은 거의 오인된 것이며 모두 야생화한 개라고 한다. 사이도<제등홍(濟藤弘)>. 따라서 아프리지방에서 중국 동북지방 및 사할린 등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승냥이를 한국에서 포획한 확실한 자료는 아직 없다. 이빨의 수는 늑대 42, 승냥이 40이다.

늑대 *Canis lupus* Linné 는 양분구 북부와 북미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나 지역적으로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으며 일본은 1900년초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우리들의 인식은 지금도 사납고 해로운 짐승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에도 지금의 실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격감되었고 극소수만이 각지에 매우 드물게 자취를 나타내는 희귀한 짐승이 되었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포획에 앞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노랑목도리담비<산달> *Martes flavigula*
koreana Mori
Yellow-necked Marten

담비는 동부시베리아의 아프르, 우스리지방에서 중국 동북지방, 중국의 주요성, 한국, 티베트, 대만, 버마, 아쌌 이서<이서(以西)> 캐슈미르, 자비 인도차이나, 씨암, 말레이지아, 스마트라 및 보르네오에 이르기까지 주로 열대지방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으나 본 아종은 우스리지방에서 한국에 이르는 지역에 한하여 분포되어 있다. 한국에는 남북한 전역에 걸쳐 널리 서식하나 흔하지는 않다. 담비는 식육성 짐승이지만 열대성채를 띤 진귀한 짐승이다. 족제비나 잘과는 달리 사지와 꼬리, 귀끝 등은 갈흑색이고 몸은 담회색이며 배는 백색이나 특히 목은 황색목도리를 하듯이 뚜렷한 황색대(帶)를 볼 수 있다. 토끼 정도의 작은 동물은 물론, 노루도 큰노루에 이르기까지 담비는 그들의 강적이다.

지리산, 설악산, 경기도 광릉 등지의 한국전역에서 볼 수 있다. 나무에도 잘 올라가며 동작이 매우 민첩할뿐더러 사나운 짐승이기도 하다. 겨울철 모피상에서도 적지 않은 담비의 모피를 볼 수 있으며 불과 몇 백원이면 입수할 수 있는 정도이나 열대성을 상징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짐승이다. 보호와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 용 문 헌 (引用 文 獻)

Austin, O. L

1948. The Birds of Korea. Bull. Mus. Comp. Zool., Harvard Coll. 101 (1):1-301

Austin, O. L and Nh. Kuroda

1952. The Birds of Japan, Their Status and Distribution. Bull. Mus. Comp. Zool., Harvard Coll. 109 (4):280-6 37

Chen, T. H

1963. China's Economic Fauna : Birds. 694pp.(Translated from the chinese by the U. S. Interior Dept.).

Greenway, J. C

1967. Extinct and Vanishing Birds of the World. 520pp. Dover Publ., N.Y.

- 今泉吉典
1949. 分類と生態 日本哺乳動物圖説. 348pp. 洋洋書房, 東京.
上田常一
1936. 滅び行く朝鮮の虎. 科學智識 16(3) : 311-313, 2photos
黒田長禮
1940. 原色日本哺乳類圖説. 311pp. 三省堂, 東京
森爲三
1956. 朝鮮天然記念物總括(動物篇). 朝鮮學報 9:323-336. 日本天理大學, 奈良.
内田清之助
1960. 天然記念物(鳥類篇). 162pp. 創元社, 東京.
山階芳磨
- 1933-1934. 日本の鳥類と其の生態 (I)524pp. 宰書房, 東京.
1941. (II) 1080pp. 岩波書店, 東京
- Yamashina, Y.
1967. The Status of Endangered Species in Japan. X Bull. ICBP : 100-109.
Vincent, J.
1966. Red Data Book. 2. Aves. IUCN Morges, Switzweland.
元炳旣 및 엠. 이. 제이. 고타
1971. 韓國의 鳥類. 450pp. 英國王立亞細亞學會韓國支部, 韓國, 서울
文公部文化財管理局
1971. 指定文化財目錄. pp.99-109. 韓國, 서울.
Worobieb, K. A.
1954. Birds of Ussuri Region. 358pp. Natl. Acad. Sci., Moskwa (Translated from Russian
into Jap. by Taka-hashi, K. I. 1964; II. 1966).